

檢, 이재명 소환통보...李 “무혐의 결정 뒤집어 망신주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관련 기업에 특혜 제공 의혹 28일 호남 경청투어와 일정 겹쳐...“정적 없으면 무능 감춰지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하면서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의 소환 통보일인 28일은 이 대표가 광주·전남 경청투어 일정과 겹치기도 하지만 망신주기식 소환 통보에 응할 필요 없다는 것이 당의 전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일단 거부하면서 정치 탄압의 프레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성남FC 제3차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 본인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지만 당도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에서 '경청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자신한 듯 검찰의 소환 조사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현장 연설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지금 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힘을 때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으로 몇 년 가까이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난 성남FC 가지고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안동 현장에 함께한 조영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나"며 "조작은 진실을 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단 당 내외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환에 응하는 것은 검찰 의도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는데다 광주·전남 경청 투어 등이 잡혀있다는 점에서 출두를 하더라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경청투어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 등을 강력 비판하는 등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고 아무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검찰이 지정한 날짜에 출두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조정을 통해 야당 탄압에 뒤흔리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검찰의 소환 조사는 예측했던 일"이라며 "무엇보다도 여론의 정치적 탄압을 민심과 함께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절대 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여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유튜버, 이태원 유족에 2차 가해...정부, 방관 말라”

녹사평역 추모 방해·유족 모욕...민주당,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해결을 촉구했다.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 회의에서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추모를 방해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2차 가해와 추모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추모·소통공간 관련해 민간 빌딩 3개 정도를 알아본다는 데, 유가족들은 민간 빌딩을 원치 않아 공공장소를 알아보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모욕, 조롱, 혐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와 조롱을 방관하지 말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묵인한다면, 2차 가해를 방조하는 범죄행위"라며 "2차 피해를 줄이고 유가

족과 생존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거듭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발생하고 3시간 뒤에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장관에게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순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장관 해임으로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 2000호 소유”

김희재 의원, 통계청 자료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2000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000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이 22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2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689호에서 1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9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학교·학급 과밀 방지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민형배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산) 의원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심각한 학생 불편을 빠르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1인당 사용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대규모 학교는 교육이 제

대로 운영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광주교육청 국감에서는 광산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금년 4월 기준, 광산구 초·중고교 과밀학급은 406개에 달하며, 광산구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0.1명인데, 남구는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약 20%가 타 지역으로 등교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고등학교 신설과 학급과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애인 이동권 패키지 제안 국민통합위, 전용 콜택시 도입 등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 이동권 증진 특위' (이하 특위)가 22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특위의 핵심 제안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콜택시 개선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 ▲장애 친화적 이동편의 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 내비게이션 기술 활성화, 비도시 지역 장애인 콜택시 확충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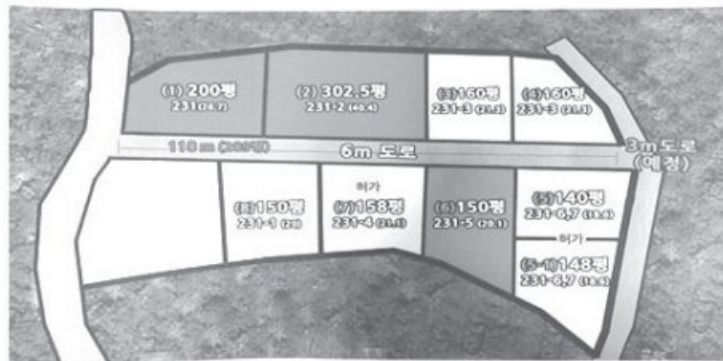
/연합뉴스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기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임암동 (아파트)박산블록 ▶ 감평가 5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